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최희*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랑가라컬리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크지 않은 것 같고 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스카이트레인 타는 곳이 근처에 있어 통학을 하거나 놀러가는 데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분반을 하지 않고 15명에서 다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자료는 학교에서 나눠주고 선생님 한 분이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오전 오후 모두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는 다른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수업은 9시~12시, 오후수업은 1시~3시까지 진행되고 쉬는 시간은 2번 있습니다. 주로 캐나다와 한국 문화차이, 상황별 회화연습, 그리고 캐나다의 역사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출석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의 수업태도나 과제 제출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하시기 때문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계절이 겨울이라 겨울에 관한 활동을 하였는데, 스노우슈잉이나 컬링을 할 때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목도리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을 방문하고 랑가라컬리지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액티비티를 할 때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스노우슈잉을 할 때 옷이 젖지 않게 해주는 장비나 보호대를 빌릴 경우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만 굳이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한국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굉장히 자주오기 때문에 작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 좋습니다. 밴쿠버에는 원래 눈이 잘 오지 않는다고했는데 마지막 날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밴쿠버는 위험한 도시가 아니지만 다운타운 쪽에 돈을 달라며 접근하는 홈리스가 있습니다. 그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갈길 가면 괜찮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0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는 집마다 규칙이나 분위기, 챙겨가야 할 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하기 전 이메일로 홈스테이가족과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있지만 한분이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홈스테이를 2번이나 옮겨야했습니다.(흑흑) 홈스테이에 문제가 생기면 홈스테이오피스에 말하면 바로바로 바뀌주니,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꼭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은 홈스테이 맘이 싸주시고, 학교 끝나고 거의 매일 다운타운에 갔기 때문에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빵과 파스타 같은 종류가 주식이기 때문에 밥이나 매운 음식이 굉장히 자주 생각합니다. 한인 마트가면 음식 값이 비싸기 때문에 라면을 한국에서 사오는 편이 좋습니다. 밴쿠버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됩니다.</p>
교통	<p>통학은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합니다. 집마다 다르지만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약 30분정도 걸립니다. 교통은 편리하며 zone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숙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운타운을 갈 때도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750,000원	외식비, 쇼핑, 입장료 등등
유심	70,000원	
합계	2,02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컵라면이나 밥 같은 한국음식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준비하면 편리하고, 밖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로밍을 하거나 유심을 준비해야합니다. 캐나다는 팁 문화가 있고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하는 점도 숙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을 갈 때나 길을 잃었을 때 구글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밴쿠버가 추울 줄 알고 패딩만 챙겨갔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딩말고도 가벼운 겔옷도 꼭 챙겨가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를 가기 전에 아는 친구가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 곳에서 모두 친해져서 즐거운 3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3주가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밴쿠버에는 볼거리나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알찬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좀 지루...하였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계기로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를 오려면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와도 정말 좋으니 순천향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캐나다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랑가라컬리지 학생들과의 만남</p>	<p>빅토리아 아일랜드</p>
	
<p>다운타운</p>	<p>하버센터에서 본 밴쿠버 야경</p>
	
<p>게이거리</p>	<p>선셋비치</p>